

중국 조선족 페미니즘 소설 연구

민 현 기*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봉건적 인습과 남성 지배권력의 타락상 |
| 2. 결혼생활의 갈등과 여성의 주체적 각성 | 5. 맺음말 |
| 3.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성찰 | |

1. 머리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직전까지 국외에 거주했던 우리 민족은 간도 및 만주 전체 지역에 216만 명, 일본에 210만 명, 소련에 20만 명, 가타지역 4만 명 등 모두 45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는 당시 한민족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대부분 日帝의 폭압 통치 기간 중 이루어진 이와 같은 대단위의 인구 유출은 세계 최초의 移民國으로 보고될 정도였으며, 같은 식민지적 상황에 처했던 인도나 중국의 경우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²⁾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이들 중 대부분은 단순

*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 전공교수

1) 현규환, 『한국 유이민사』(어문각, 1967)와 고승제, 『한국 이민사 연구』(장문각, 1973.)에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다.

2) 인도의 유출 인구는 1937년까지 통산하여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었고, 중국의

한 '이민'이 아니라 일제의 가혹한 수탈정책과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닌 '유랑이민'들이었다.³⁾

현재 國外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약 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에 200만, 미국에 120만, 일본에 70만, 러시아에 50만, 기타 여러 지역에 60여만 명의 韓民族이 살고 있다. 특히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이 살아온 역사는 혹독한 고통과 질곡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삶의 뿌리는 역사적으로 日帝의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삶이 日帝強占 이후 얼마나 流民化 되었는가는 이미 많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상세히 밝혀진 바 있다. 일제의 무자비한 수탈로 말미암아 국내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기된 대단위 民族移動인 유랑이민의 문제는 궁핍한 현실과 정치적 억압의 극한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1세대가 바로 이처럼 혹독했던 시대를 살았던 유이민들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조선족들이 피운 민족문화의 꽃은 이제 그 값진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 음악 무용 등 예술 분야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문학창작 분야,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이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여성작가들의 활약은 국내 여성작가들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소설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면, 거기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는 순수 학문적인 면에서만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민족 작가들을 대한 대중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창작욕을 고취시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족 문학에 대한 기존의 편협한 사고를 극복하

경우는 1940년 현재 2%밖에 안 되었다.

최원규 엮음,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p.116.

- 3) 필자는 이러한 유랑이민의 역사적 삶을 구체화한 소설작품을 '유이민 소설(流移民小説)'이라 칭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아래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일제하 한국소설과 유랑이민」, 『우리문학』, 1986년 창간호, pp.195~218.

「일본 노동이민과 일제하 한국소설」, 『세계의 문학』 1986년 겨울호, pp.101~123.

「한국 유이민소설 연구」, 『어문학』(한국어문학회) 51집, 1990, pp.75~93.

『한국 유이민소설 선집』(편저),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고 여성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와 전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 언론에 많이 알려진 작가나 작품 몇몇을 피상적으로 해설하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내용 분석에 치중하여 작품의 심미적인 특징을 간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족 문학의 총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협소한 시각으로 한두 가지의 지엽적인 문제를 찾아낸 데 만족한 연구 결과도 많다. 특히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아쉬운 점은 80년대에 등장한 조선족 여성작가들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⁴⁾ 더 나아가 조선족 문학사를 통해 반드시 조명되어야 할 여성작가의 독특한 인식이나 사회적 위상 또는 그것과 관련된 ‘여성의식’ 문제를 함께 포괄한 연구 성과는 더더욱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작품들을 연구자들이 철저히 읽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간행되는 조선족 작가들의 창작집이나, 매달 나오는 문예잡지들을 한국에서 구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 문학사에서 여성작가들이 문단의 전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 역사에서 1980년대란 곧 10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의 참상과 좌경노선이 빚어낸 정신적 재난이 불식되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상해방운동과 개혁개방 경제건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서의 전환과 윤리적 변혁의 시기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문학창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 것은 역량 있는 조선족 여성소설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 남성작가 중심의 문단풍토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한편, 침체와 억압의 시대상황으로부터 깨어나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4) 필자가 조사한 바 국내에는 연구논문이 없고, 중국에는 ‘연변대학 제1차 중국 조선족 문화 학술토론회 논문집’에 실린, 리승매의 비평이 한 편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여성작가의 소설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리승매, 「애정을 주제로 한 중국 조선족 여성소설」, 『중국 조선족문화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3. pp.217.~227. 이 책은 1994년에 한국의 목원대학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된 바 있다.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작가들의 새로운 자각과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이 시기에 독립적 인격을 갖춘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 사회적 모순 또는 봉건적 잔재와 투쟁하는 강렬한 여성의식을 고취하는 소설들이 많이 창작·발표되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조선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작품에 대한 당대 여성독자들의 문학적 관심과 연계시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족 여성작가들이 이룩한 문학적 가치와 의의는 무엇보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세계관을 여성 중심으로 轉移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남성의 감각과 언어가 아니라 여성 고유의 감각과 언어로 된 작품을 남긴 것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가 깊다는 뜻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외부(타인과 사회)의 자극에 예민하고, 순간적인 상황을 포착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때문에 남성작가에 비해서 감각적인 글쓰기를 많이 한다. 감각적인 글쓰기란 추상화된 표현을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몸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거대담론이나 이데올로기 지향의 '친남성화'를 거부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것은 여성 특유의 감수성으로 인물의 심리적 推移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현미경적 표현 능력을 말한다. 거의 모든 소설들이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남성작가의 소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여성성'과 '모성성'의 정체를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성작가의 경우에는 周邊部로 밀려날 생활 속의 문제들을 中心部로 끌어들어서 치밀하게 조명한 후 여성적인 해법을 탐색한 작품들 역시 의의가 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독자는 남성화된 기존의 세계와 인간을 '다시' 볼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가치는 곧 '페미니즘' 문제와 결부된다. 여기서 페미니즘이란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는 다른 '여성성'을 정당하게 수용하고 여성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담론을 비판하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여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조선족 여성작가의 소설 가운데 페미니즘 소설로 평가할 만한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이 지

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조선족 문학사에서 ‘페미니즘 소설’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10년 동안 발표된 모든 여성작가의 소설 가운데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단편·중편소설 11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후의 시기를 제외한 이유는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식의 독창성이란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앞의 작품 경향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작품들은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 그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문예잡지 『연변문예』(1985년 1월호부터 『천지』로 바뀜), 『은하수』, 『아리랑』, 『장백산』, 『도라지』 등에 발표된 소설들이다.

2. 결혼생활의 갈등과 여성의 주체적 각성

80년대의 개혁·개방에 따른 급격한 가치 변동은 조선족 여성들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가정만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없다는 개방적인 인식을 하고, 가족만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개인주의적인 思考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가족과 사회 속의 위치를 주체적으로 인식하여 삶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남자들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버리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것은 물론 전통적인 결혼관 및 부부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여성들은 종전의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위치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남편(가족)과의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혼에 대한 조선족 여성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종전에는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고통을 참으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여자 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조선족 여성작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야기된 부부의 갈등 양상 및 그 이상적인 해법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주체의식 확립 또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문제

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남편과 아내의 위치란 무엇이고 행복한 부부관계란 어떤 것이며,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사회적 요인과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일'과 남편과의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통스럽게 탐색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7편의 소설을 살펴보겠다. 먼저 부부생활의 심각한 갈등(이혼)과 여성의 주체적 각성을 그린, 리선희의 「거미줄」(1987)과 「그녀의 세계」(1989), 「역광」(1989), 한정화의 「회오리치마」(1998), 허련순의 「그림자의 저쪽」(1992)등을 분석한 다음, 갈등의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거나 부부의 역학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인, 리혜선의 「눈 내리는 새벽길」(1984)과 방룡주의 「눈보라 치는 밤」(1982)을 살펴보겠다.

리선희의 「거미줄」은 조선족 사회에서 기혼여성이 당하는 二重의 질곡을 밀도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기서 작가가 문제 삼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여성관과 남성우월주의이다.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여성의 의지는 무시되거나 폄하되고 오로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역할만 강조하는 비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확대·재생산된다. 작가는 이러한 가정내의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끌어들인다. 곧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 사회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부당한 비난은 능력 있는 여성의 삶을 짓밟는 거대한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정혜는 결혼 5년만에 남편과 이혼을 한다. 3살 난 아들은 정혜가 부양하기로 합의한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관념 때문이다. 게다가 구타까지 한다. 남편은 정혜를 여자가 아닌 '아내'의 존재로서만 인정하려고 한다. 마치 애완견처럼 목에 끈을 매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아내의 영역을 떠나서는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옛날 아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혜는 자신이 키워온 모든 가치를 남편과 가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모두 버려야 했다.

남편의 속에 맺힌 매듭을 풀려면 정혜는 분투와 탐구 이 사회적 가치를 버려야 했다. 마치 좁디좁은 도랑에 흘러든 물처럼 그 속에서 썩고 말아야 했다. 사회의 발전이야 여하튼 개혁이야 여하튼 가정은 여전히 <녀필종부>의 고루한 원칙이 통제해야 했다.

이혼을 한 후 정혜는 오로지 직장의 일에만 매달려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직장 동료들이 정혜가 이혼한 사실을 놓고 나쁜 방향으로 상상하고 몰래 조롱한다. 정혜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며 가까이하는 걸 서로 꺼린다. 이혼녀에 대한 차별이 남편의 완고함 못지않게 가혹한 고통과 상처를 입힌다. 작품의 제목인 '거미줄'이란 여성의 삶을 읊죄는 세상의 편견과 인습을 상징한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자가 결혼하면 오로지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한 여자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일방적인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다. 작가는 이러한 여성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품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다.

여자가 갈 길이란, 인간의 가치를 찾으려는 자신의 길이 이와같이 또 다시 붉은등의 차단을 받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그의 앞길을 막을 장애가 없으려니 한 것은 완전한 오산이었다. 갑자기 정혜는 걸음을 멈추었다. 복도의 출입문 꼭대기에 애기주먹만큼한 왕거미가 지긋게 부지런히 거미줄을 늘이고 있었다. 세상의 편견이란 저 완고한 거미가 능갈치게 줄을 늘어 날벌레를 낚으려고 노리는 것처럼 그렇듯 지긋게 완고하게 정혜의 앞길에 열기설기 늘어지고 있다. 정혜의 눈에는 역올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입가에는 이악스런 빛이 어렸다. 기어코 이 거미줄에서 해탈되어 나가리라. 입술에서 빨간 피방울이 입가를 따라 뚝 떨어졌다. 피의 맹세였다. 녀인의 맹세였다.

리선희의 또 다른 작품인 「그녀의 세계」는 1989년도 '연변작가협회 문학상'

을 수상한 중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서로 이해와 사랑이라는 ‘공동언어’가 없는 부부의 무미건조한 회색빛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아내인 윤희의 시선에 비치는 남편 순오의 무관심하고 답답한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개혁개방 시대에도 ‘현모양처’를 이상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조선족 남성들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남편의 편협한 思考와 자기중심적인 생활태도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되고 있다. 남편은 연변 사회에서는 최상의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중공업 개발공사의 연구원이다. 그러나 늘 연구에만 몰두할 뿐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기계인간’에 불과하다.

안해가 앵달아질 때 한번 웃어주면 어때? 남편의 마음에 있어서 인간세상은 추호의 허위와 가식도 용서없는 그의 과학연구처럼 모든 것이 표정과 실질이 통일되는 등식이였다. 인물을 두고 의론하는데도 남편에게는 독특한 ‘공식언어’가 있다. “저 사람은 안장은 팬찮게 했는데 부속이 틀렸어”, “저 사람은 부속은 좋은데 각도를 잘 맞추지 못했군.”

윤희는 이러한 남편의 ‘기계적 사유’에 윤희는 늘 절망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언제나 아내한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데, 그것은 “인격상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며 사업상 자신을 리해하는 것이며 생활상 자신을 관심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아내의 일과 처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아내를 비롯한 작가들을 ‘글놀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며, 아내가 밤늦게까지 원고를 쓰면, “하필 거짓말을 꾸미느라 머리를 썩일 건 뭐요? 인간이란 참 리해할 수 없는 족속이거든...”이라고 빈정댄다. 그는 자기를 이해해 줄 것만 바랄 뿐 아내 역시 이해해줄 것을 바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여자는 귀여워할 동물이지 이해할 인간은 아니라는 고루하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인물이다.

아내 윤희는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위치를 잃고서까지 현모양처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늘 부부간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다정다감한 인물이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부 사이의 인간적인 교류이다. 상대방

에 배려와 존중이다. 윤희가 “난 다시 인생을 중복하라면 생활이 뭔지 아는 사람을 선택하겠어”라고 친구한테 말하는 것만 보아도 남편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생활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의 생활은 바닷가의 조가비처럼 올망졸망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생활은 바닷물처럼 설레일 수도 있지. 때로는 집채같은 파도로 뒤흔들릴 수도 있고. 문제는 생활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는 거겠지.

윤희의 이러한 생각 역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남편의 무관심과 불이해를 비판한 것이다. 결국 ‘생활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남편과 살아야 하는 윤희의 불행은 임신중인 아이를 유산하는 사건으로 극대화된다. 아이의 죽음은 곧 윤희가 남편 대신 매달렸던 삶의 의욕과 기대감을 영원히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남아 있는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작품이 처참하게 박살난 어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 것은 이와 같이 위험한 부부생활의 비극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 성공한 남편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실린 신문지가 미끄러져 깨진 유리조각 위로 떨어지는 것 역시 남편의 사회적 성공과 아내의 가혹한 고통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 읽혀진다.

이 소설에서 윤희의 친구로 등장하는 인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숙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남자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독신 여성이다. 그녀는 여성들의 ‘자기 해방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을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주체성이 강한 인물이다. 그녀는 주위의 남자들이 자신처럼 성격이 뚜렷한 여자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때문에 윤희한테 “남자들은 너같이 아련하고 고분고분한 너자를 좋아하는 법”이라면서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감이 되지 않나?”라고 냉소적으로 되물으며, 아직도 보수적 여성관에 사로잡혀 말 잘 듣는 여자들을 선호하는 모든 남자들을 꼬집는다. 인숙은 노처녀로 늙더라도 가정의 ‘여노예’ 역할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한다. 특히

밖에서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집에 들어선 수컷이라구 으스대는 자식들을 보면 내가 왜 무술을 배우지 않았는가 후회돼.”라고 가부장적인 권위만 내세우는 남편들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숙의 당당한 여성적 태도는 매사에 남편에게 매달리는 윤희의 나약하고 불행한 삶과 대조적인 방향에서 읽힐 수 있다. 작가는 인숙을 통해서 개혁 개방화 시기에도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족 남성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리선희의 중편소설 「역광」은 같은 신문사에 근무하는 유부남 경민과 유부녀 윤희의 빚나간 사랑을 그리고 있다. 불륜이라는 통속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내밀한 심리와 상황의 변화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상투성의 위험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문학부 주임인 경민은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둔 전형적인 중산층 집안의 가장이다. 그는 직장 과 가정에서 신뢰받고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 인품도 가지고 있다. 그의 사랑은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낭만적 인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불륜인 이상 그가 감당해야할 심리적 고통은 예상외로 크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일상적인 질서의 파괴이다.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돌아선다는 것이 너무도 비참하지만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 역시 자아 해멸이라는 처참한 끝장뿐이라 할 때 그는 오도가도 못하고 못박힌 듯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경민이는 자기의 가정을 깨뜨려볼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다.

“남의 눈을 피해 어둠과 고요를 누비는 비밀의 사랑은 별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사랑을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깨뜨릴 마음이 없다. 부적절한 사랑에 대한 불안감은 그가 승진을 앞두고 있으면서 더욱 가중되고, 거기에다 그는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는 세상과 적절히 타협할 줄 아는 영리함도 소유한 까닭에 윤희와의 관계에서 ‘전진’보다는 ‘퇴각’을 음모한다.

잘못하면 현실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은 신문사 부사장의 말년을 곁에서 지켜보고부터다. 부사장은 젊은 시절 조강지처를 버리고 사랑을 택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결국 철저한 소외였다. 인생은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 경민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가정이란 울타리를 답답한 구속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이 보장해주는 평화와 안정의 '단 맛'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윤희는 기존질서를 파괴할 만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살아가는 '로봇' 같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려고 한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택하려고 한다.

당신은 저한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었어요. 과거 저는 추구하면서도 억제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로봇'을 위해 인생을 매장해야 하는가요? 저의 청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딱히 경민과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계처럼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잊어버린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성찰과 각성이며 정체성의 확립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는 경민이 자신처럼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택할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윤희 역시 일상생활을 전복시키거나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다시 그 일상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을 깨지는 않으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타협점을 찾는다. 그녀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한다. 이것이 경민과의 사랑을 통해서 얻은 수확물이다. 그러나 윤희의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경민이 아닌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뒤흔치게 재혼을 하는 편이 보다 정직하지 않겠는가?

한정화의 「회오리치마」는 결혼생활에서 파생되는 남편과 아내의 바람직한 관계 및 현실과 갈등하는 도덕 윤리를 문제삼은 소설이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갈등하는 인물과 사건의 해결 방향이 끝까지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부부생활의 심각한 문제점만 제시할 뿐 모든 해답은 독자에게 넘겨준다. 조선족 여성소설 가운데 이런 진지한 문제의식을 선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집요하게 모색한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작중호자인 ‘나’는 잡지사에 다니는 소설가이다. 직장을 파하면 아이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늘 글쓰는 시간이 없어서 찢찢 맨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할 뿐 아내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남편들 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봉건적인 남자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서, 아내를 그냥 가정주부로만 생각한다. ‘나’는 남편과 다투고 나면 부부간의 사랑도 ‘학문’이며, 펄펄 끓다가도 미지근해지는 것이 부부의 감정이라고 여기며 “사랑을 싱싱하고 향기 있는 꽃으로 영원히 피어나게 하려면 서로 부지런히 가꾸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에 비해 친구인 경희는 무척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다. 경희의 남편 역시 직장의 일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희 또한 늘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고 마침내 “감정도가니가 게세된 남편과 아기가기한 정을 나눌 수 없어” 같은 직장의 유부남과 혼외정사를 벌인다. 경희는 그와 사랑에 빠진 사실을 죄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논리로 그 ‘관계의 불가피성’을 합리화한다.

난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랑속에서, 뼈속까지 스며드는 체험속에서 새로운 도리를 추리해냈다.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요에 따라 도덕의 범위도 개혁해야 한다구 봐. 결혼했다구 몸과 마음을 꼭 한 사람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 룰리도덕이야 수천년 전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런데 20세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냐? 몸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두고도 그것을 억제하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도덕, 정신적으로 기쁨을 주고 사업에서 호상 힘으로 되는 이런 사랑이 <죄>로 되는 이 자체가 비도덕이 아니냐 말이나?

그러나 난 후회하지 않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인권이야. 때가 되면 감옥이 없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거야. 자아감수를 첫 자리에 놓는 것은 사회발전의 필연추세야. 난 선구자의 대가를 치렀을 뿐야.

이처럼 이 소설엔 과감하게 불륜을 합리화하려는 인물이 등장한다. 늘 구시대적인 윤리 도덕에 얽매이는 결혼생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선구자’임을 자칭한다. 이에 비해서 ‘나’는 비록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희의 ‘길’과 나의 ‘길’은 서로 상반되지만 양쪽 모두 결혼생활의 갈등과 불행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이 두 길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탐색’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황홀한 꿈을 한 가슴 안고 대학문을 나섰던 경희, 미래의 세계를 달처럼 눈부시고 노을처럼 아름답게만 생각하던 경희는 사회에서 3년도 넘기지 못하고 순정과 치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어갔다. 경희가 찾은 길, 내가 찾은 길의 갈림길에서 도대체 어느 길이 문명의 지름길인가? 저 멀리 저 멀리로 끝없이 흐르는 송화강 물결처럼 번거로운 생각은 끝없이 소용돌이쳤다.

여기서 ‘문명의 지름길’이란 행복한 부부생활(남녀관계)로 통하는 현실적인 삶의 길을 의미한다. 남편과의 불화를 견딜 수 없어서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섰던 경희의 모습과,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기적인 남편과의 화해를 도모하며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은 결국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부생활의 양면성이자 평생 풀기 어려운 생활의難題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사랑을 찾아 결혼하지만 서로의 관계가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불행을 겪고, 그 보상행위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뛰쳐나가는 끝없는 모순과 갈등의 반복 과정을 의미한다.

허련순의 「그림자의 저쪽」은 결혼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자아 찾기’ 또는 ‘정체성’ 확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은정의 남편은 市長이다.

그러나 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자주 한다. 남편이 시장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은정의 도움 때문이다.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은정은 남편의 사회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은정은 남편이 시장이 되자 아예 직장(중학교 교사) 그만두고 집안에서 남편의 일을 돕는다. 그래서 남편한테 ‘국가급 일등비서감’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한다. 말하자면 은정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남편의 성공을 위해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시하자 은정은 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참담한 기분으로 스스로를 가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은정은 남편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사실을 후회하며 남편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살아온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남편한테 무언가 기탁을 하고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버티여온 나날들, 그 뒤에 차례지는 작은 회멸, 하나를 위하여 눈물겹게 고뇌를 삭이며 살아온 나날들, 그녀는 꿈도 희망도 모두더 남편한테 기탁했던 것이다. 만약 그 어느 날 남편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남편의 성공이지 그녀의 것은 아니자 않는가?! 물론 그도 안해로서 기뻐해야 할 것이지만 그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높아가는 남편의 성망과는 반비례로 슬픔만이 더 많은 생활, 그녀는 끝없는 저 인파 속에서 그들과 같이 힘있게 견고만 싶었다.

은정은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점 때문에 큰 고독을 느낀다. 남편의 행복이 아내의 행복을 대신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도 깨닫는다. 은정은 시장부인이라는 허울 좋은 호칭 속에 속아서 살아온 삶이 가짜였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포기한 ‘노예’로서의 삶이나 마찬가지로, 시장부인이라는 호칭 역시 기만과 허위에 가득 찬 세속적 호칭에 불과하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자신”을 후회하고, “그림자에 가리워진” 다른 쪽을 찾고 싶어한다. 그러나 작가는 은정의 후회와 깨달음이 앞으로 현실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냥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진 삶을 회복하고 싶다는 소망만 추상적으로 피력할 뿐이다. 대개의 경우 ‘그리움’이란 감상적인 성격이 짙

다. 현실적인 실천을 동반하지 못한 그리움이란 소멸하는 감정의 여울에 불과하다.

리혜선의 「눈 내리는 새벽길」은 조선족 사회에서 여성이 일터로 나아가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편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의 과정이 여성 화자의 눈을 통해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작중화자인 ‘나’가 친구 옥선에게 보내는 답신 형식을 띤 일종의 ‘서간체소설’로서 옥선의 편지와 그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 남편과의 갈등, 나의 과거(결혼 전)에 대한 회상, 취재차 내려간 샘골에서 만난 ‘김수의’의 이야기가 액자로 나오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시제상으로도 현재와 과거가 병치되어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심리변화 과정이 뚜렷이 나타난다.

‘나’는 여기자로 가정과 사업(일)을 양립시키는 데서 오는 갈등과 남편의 물이해로 괴로워한다. 게다가 유난히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남편과 육아의 부담 때문에 임신을 미루려는 나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사회와 가정의 물이해 속에서 자신의 일을 혼자서 이루어야 하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과,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리라 믿었던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소외감으로 ‘나’는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다.

녀인들도 인간이에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회에 등장해야지요. 그들도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잘해야 할뿐더러 성과를 내야 해요. 대학까지 나온 그들이 가정에만 파묻혀서야 되나요! 무엇 때문에 가정을 버려야만 사업을 잘할수 있소? 가정이 그렇게 장애로 된다면 결혼은 왜 하는가 말이요! 나는 교원이요, 나에게도 사업이 있소!

그러나 김수의와의 만남은 혼란과 고통에 빠져있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는 직장일로 가정을 등한시한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의 생활도 변화시킨다.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나는 일을 통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도움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삶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획득한다.

작가가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창조한 ‘김수의’는 샘골에서 수의사 일을 하는데, 매번 가축을 치료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쏟고, 그녀의 남편 또한 아내가 성공적으로 의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돕는다. 그녀는 힘든 일을 마치고도 남편의 털옷을 완성하기 위해 밤길을 달려오는 열정을 지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 또한 부부가 서로 손이 맞는다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생활의 다른 ‘도리’를 알게 되니까 회피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등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 하는 성숙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나를 포함한 모든 조선족 직장여성들이 본받아 할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큐리부인을 보세요. 그이는 라듬을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탄 일류너과학가이지만 또한 현숙한 안해이고 훌륭한 어머니였지요. 그이는 일요일이면 남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교외에 가 산보를 하곤했대요. 그리고 어쩌나 애를 끔찍이 사랑했던지 큐리가 슬그머니 질투까지 났대나요. 호호호... 그이에게 비하면 우리야... 사업이란건 또 일순간에 이룩되는것이 아니고 지구적인것이어서 너무 조급해 해도 안되지요. 아이참, 기자선생님앞에서 주제넘게 설교를 하는군요. 호호호...

이렇게 김수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을 짐스러워하고 피로워하기보다 삶의 다채로움으로 승화시키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두가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것은 한편으론 ‘수퍼우먼 콤플렉스’ 또는 ‘신사임당’ 콤플렉스를 조장하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생활의 고단함을 오직 남편의 탓으로 전가시키는 데 몰두해 있던 나에게 뼈아픈 반성과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본다. 김수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는 또 같은 처지에 있는 후배 ‘옥선’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하는 인물은 곧 김수의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작품에서 '길'은 삶의 시련에 직면하여 변화하는 심리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시련의 '눈길'을 걸어서 남편과 '한 길'에 오르기까지의 내면적 성숙의 과정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앞길이 점점 흰히 트이더구나. 새벽어둠이 점점 가셔지기 시작했어. 앞을 내다보던 나는 홀연 머리가 탁 트이는것만 같지 않겠니! 그런 감정은 삼림속에서 해매다가 길을 찾은 사람에게만 있을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

이처럼 「눈 내리는 새벽길」은 여성들이 직장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고 남편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성 주인공의 섬세한 심리적 표현을 통해서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행복한 부부생활이란 사회적 제도와 윤리적 토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노력과 진지한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복잡한 삶의 문제를 너무 모범적인 방향에서 관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 작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설득'과 '교훈'의 목적성이 많이 노출되었다는 점이 작품의 결함으로 드러난다.

방롱주의 「눈보라 치는 밤」은 이상적인 부부생활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독립된 위치에서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서로 존중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한 작품이다. 작가는 여자들이 꿈꾸는 안락한 결혼생활의 허구성과 세속성을 폭로하고, 현모양처라는 허울좋은 이름 아래 상실된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되찾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동물학을 전공한 주인공 은주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남다른 과학자적 탐구력을 인정받아 친구인 설화와 함께 교수 밑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수가 '잡귀신'으로 몰리고, 은주와 설화 역시 고난을 겪는다.

'오만한 고려처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자존심이 강한 은주는 치욕을 참을 수 없어 아무도 모르게 고향 연변으로 내려와서 공장에 임시직으로 취직한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안승필이다. 안승필은 고통을 겪던 은

주를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준 은인이나 다름없다. 은주는 안승필과 결혼한 후 자신의 학문적인 관심과 능력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러나 남편은 공장장으로 승진하면서 점차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속물적이고 타락한 인간으로 변모한다. 게다가 은주를 자신의 '예속물'로 생각하여 옳은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결혼생활의 허구성을 깨닫기 시작한 은주는 지금도 동물 연구를 계속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친구 설화네 부부를 부러워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공장에서 부상을 당한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탱크 밑바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일로 남편은 엄중한 조사를 받고, 은주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기로 결심하고, 설화네 부부가 머물러 있는 장백산에서 '중화궛비오리'라는 새를 연구하기 위해 집을 떠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여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얽매어는 아내의 길을 버릴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지닌 탁월한 능력을 버리고 '종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개혁 개방의 시대를 맞이해서 부부의 삶도 물질 중심의 가족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치 지향적인 公益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보라 치는 밤'이라는 작품 제목 역시 이러한 전환기의 시대인식과 관계가 깊다. 겉으론 행복해 보이는 부부생활이 사실은 '겨울'이고, 상투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개인적인 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곧 '봄'이라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3.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성찰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영향은 물론 조선족 사회에도 미치고 있는데,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사회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여성 산업인력이 증가하고,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리혜선의 중편소설 「저녁노을」

(1986)은 이러한 조선족 사회의 문제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노인의 소외된 삶을 치밀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결과로 보인다.

이 작품의 서술 주체는 은경이다. 은경은 생활력과 향학열이 강한 젊은 여성이다.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몇 번의 좌절을 맛보지만, 대학진학과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않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다. 오빠와 올케 사이에서 힘들게 지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결국은 대학 진학의 꿈을 이뤄내고, 생활비를 아끼고자 오빠의 학교 동창인 춘자 언니의 친정집에서 자취하게 된다. 한편 은경과 대비되는 舊世代의 인물은 봉녀라는 노인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하고, 퇴직 이후의 무력해진 삶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봉녀가 살아온 삶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은경의 현재의 모습과 선명히 대비된다.

은경은 봉녀의 일기를 통해 봉녀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알게 된다. 봉녀는 모범 교원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삶은 불행했다. 원치 않는 결혼과 남편의 외도로 고통을 겪다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지만 이후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살아가는 아픔을 겪는다. 이는 불행한 환경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은경의 모습과 대비되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은경과 봉녀로 대표되는 신·구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를 강조한다. 은경의 주위에는 애정을 표현하는 남성 현일과 재호가 있다. 은경은 수려한 외모의 현일에게 연정을 품지만 그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이와 대비되는 재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는다. 은경이 A시로 이사한 것을 알고 은경의 집을 방문했다가 봉녀로부터 무안을 당한 재호는 은경으로부터 봉녀의 사정을 알고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 노인에게 대한 공경과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 재호로부터 은경은 감동을 받는다.

한편 구세대를 대표하는 남성으로 봉녀의 첫 남편을 들 수 있다. 그는 난봉꾼의 기질을 지닌 봉건적 인물로서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남자의 모습을 보인다. 봉녀의 일기속에서 ‘악한’으로 묘사되는 그는 봉녀와 강제로 결혼하고, 결

혼후에도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봉녀로부터 돈만 갈취한다. 봉녀와 헤어진 후 늙고 병들자 그 동안의 과오를 후회하고 봉녀와의 재결합을 모색하며 봉녀의 집 주변을 기웃거린다. 그러나 은경으로부터 건네받은 봉녀의 일기 속에서 완강한 봉녀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그곳을 떠난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삶의 모습은 신·구 세대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0~4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의식의 전환을 가져온다. 남성에게 순종하며忍苦의 삶을 살던 여성이 한 세대를 거치는 동안 그 봉건적 굴레를 벗어나 혼자서 자립하는 의지적인 인간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다음 세대인 은경에게서 더욱 분명히 표현되는데, 신·구 세대간에 이러한 의식 변화의 계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봉녀는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은경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그 변화의 계기를 얻는다. 두 여성이 잘못된 결혼과 가난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은 조선족 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긍정적 가치관의 현실적인 수용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저녁노을」에는 개혁 개방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변화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산업사회로의 재편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변화하는 사회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의 고통을 겪는 봉녀로 대표되는 여성노인들의 삶이다. 그들은 아직 노동의 의지와 체력은 있지만 나이로 인해 직업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일나간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들을 도맡아 기르면서 자신의 무력한 인생에 대해 토로하곤 한다.

“그렇게 돈벌이 하는 것도 괜찮지. 우리처럼 간부 명색을 띠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장사두 못한다지, 사지가 성해두 거저 놀아야만 하니 속이 근질거려 어디 살겠소?”

“자식들도 이전의 ‘범잡을 때’ 늙은이들인가 해서 손자손녀들을 보는 것도 재미라고 하면서 만이구 들썰구 다 애들을 몰아오니 늘그막에 어디에 다니는 맛도 없이 저래 지치구 말겠다니깐. 나두 정과부 절반만이나 마음이 모질었으면 자식들을 다 쫓아내구 말았겠소.”

나의 예측이 맞았다. 무도장에는 거개가 청년남녀들이 아니면 중년들이었다. 나의 주인공들은 거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나의 주인공과 같은 <젊은> 로인들은 손자손녀를 볼 책임은 있어도 무도장에 다닐 자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 여론이 이렇게 자리잡혔거니와 그 자신들도 이를 금욕주의의 하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직을 퇴직한 후 무력감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봉녀는 취미로 댄스 교습소에 출입한 것과 손녀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춘자와 갈등을 빚는다. 봉녀가 여자가 아닌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춘자의 마음은, 아직도 여성성을 잃지 않고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봉녀와 대립하는 것이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독립적인 자신의 삶의 세계를 가꾸려는 노인들의 노력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에 부딪히는데, 춘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작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대접받으며 자기 일을 하는 젊은 세대들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인이 되어 일거리를 잃고 ‘소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때 어디선가 신선한 가을바람이 물려왔다가 슬쩍 지나갔다. 그통에 강 건너 이빨나무들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나뭇잎들이 떨어졌다. 불현듯 나도 언젠가는 나의 주인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백발골패군 로인처럼, 한담꾼 아낙네들을 망라한 세상의 모든 로인들처럼 늙은이로 되어버릴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면 나도 지금은 모를 그 어떤 직업 전선에서 손을 뗄 텐데 그땐 나는 무엇을 할까? 골패는 놀지 않을 것이고 낚시질을?... 또는 그 어떤 불행한 인생 때문에 나의 주인처럼 덧없는 회색 추억속에서 헤매야 하는가? 나는 겁이 더러웠다.

은경은 봉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위치에 서 있다. 봉녀의 현재 모습이 곧 자신의 미래 모습임을 깨닫고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재호 역시 당대 노인들이 처한 사회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며 은경과 더불어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신문에 실린 독일의 노인정책에 대한 기사를 은경에게 보여주며 당면한 노인문제의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런방 독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에서 생활하는 로인들은 평균연령이 75세이고 농장 지배인의 연령은 94세지만 정신이 분발되고 몸이 건강하다. 그들은 사업 가운데서 생기로 충만된 생활의 즐거움을 시시각각 맛보고 있다. 정년퇴직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국제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정년퇴직자들에게 기호와 시교기능을 키우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독일 노인들의 생활과 또 다른 신문에 소개된 미국 노인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은경의 “머리 속에서 잠자고 있던 사회문제 세포를 세차게 자극”한다. 은경은 노인 문제가 결국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는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노인사회를 연구한다. 작가는 「저녁노을」을 통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와 가정에서 모두 소외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앓으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실상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한다. 때문에 당면한 노인 문제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객관화하는 대신,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 모습인 노인들을 무엇보다 이해하고, 또 직장에서 퇴직한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소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4. 봉건적 인습과 남성 지배권력의 타락상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요인이란 주로 ‘관념’이나 ‘意識’의 형태로 존재하여 삶을 통제하고 壓制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이 바로 인습과 편견이다. 외적 요인이란 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당한 '힘'의 형태로 존재하여 삶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력의 횡포와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역시 한국인들처럼 봉건적 인습과 편견이라는 '질곡' 속에서 오래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다. 80년대의 意識 개혁으로 이러한 내적 억압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殘滓는 곳곳에 남아서 삶을 부당하게 옥죄고 있다. 또한 가정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권력'이라는 비이성적인 횡포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윤리성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사사로운 욕망과 개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되는 권력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다. 조선족 여성작가들은 이와 같은 봉건적 인습에 희생되는 여성들의 불행한 삶을 조명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거나, 직장에서 자행되는 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허련순의 「고루한 녀」(1988)은 이혼녀를 대하는 사회적 편견과 보수적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있다. 시대배경은 개혁개방의 기치가 드높은 80년대지만 이혼녀를 보는 사회의 시선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혼녀와 총각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작품의 주인공인 백운은 사회적 인습에 얽매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혼녀라는 이유로 늘 상처받고 절망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나 아직은 세상의 인습과 맞서 싸울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떠나보내야 하는 가련한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백운의 애인인 영준은 백운을 사랑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가족의 오해와 질투, 고의적인 방해로 인해서 그녀와 이별을 한다. 영준 역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가없는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사면초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운의 처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백운이는 마침내 복잡한 사회층차에서 한 여인이 자기의 권리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그가 과부일 때는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여성의 운명이란 말인가?! 한 남자에게 속했을 때면 남자의 사유재산에 불과했고 그에게서 해탈되었을 때는 사회의 공동한 소일거리로 되고...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녀자도 인간이다. 인간은 인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 내용은 통속적이고 신파적인 요소가 많다. 백운을 불행에 빠뜨리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이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억지로 연극을 하는 백운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건의 우연성이 빈번하여 두 사람 사이의 진실성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영준을 보내고 나서 그를 배반한 건 자신이라면서 끝까지 그를 기다리겠다는 백운에게 “허지만 너의 행동은 네가 그렇게 멸시하던 중세기적 고루한 녀의 재현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고 책망하는 외삼촌의 말처럼 백운은 끝에 가선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작가정신의 허약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영옥의 「오얏나무」(1992)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며느리와 어떻게든 집안의 대를 이루려는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며느리는 집을 나가고 아들은 재혼을 하지만 두 여인이 동시에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또다른 갈등이 생긴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가정의 후사 문제로 증폭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의 불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미순은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인다. 부엌일이고 닭똥 치기고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해내고, 마음씨 또한 고와서 시누이들과도 잘 지낼뿐더러 시어머니의 괴팍한 성미도 잘 맞추어나간다. 다만 결혼하지 7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흠인데, 미순 스스로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함을 죄스럽게 여겨 집을 나갈 만큼 전통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던 미순이 작품의 결말에 가서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고도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우겠노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통해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남편과 가정의 울타리

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내용으로 보아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여성의 의식개혁과 지위 향상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순의 일련의 행동은 작가가 제시하려는 새로운 여성의 모습이다. 해순 또한 이러한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작품결말에서는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작가는 시어머니로 대변되는 전통의 관습들을 부정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전통적인 남성관에서의 강인함과 지혜는 찾아볼 수 없고 한없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 창조를 내세움으로써 전통적 남성관의 허상을 꼬집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완전한 여성 의식을 고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 작품의 말미에 미순이 아기를 보며 더없이 행복해하며 그렇게 그리던 남편과 시댁을 까맣게 잊는 것을 볼 때 미순이 오로지 아이의 양육에만 매달릴 위험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미순의 “나는 너의 어엿하고 훌륭한 엄마가 되련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다. 오로지 자식만을 뒤탈 바라다지며 이른바 ‘모성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 살겠다는 것인지, 아이에게 능력있고 당당한 삶의 주체이자 사회일원으로서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방룡주의 중편소설 「선술집 녀인」(1986)은 ‘분녀’라는 여성의 고난 극복담인 동시에 가부장적 인습과 지배계층의 탐욕 및 위선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과장과 김부장, 지영감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하루는 운동을 마친 후에 지영감의 소개로 두 사람은 어느 선술집을 찾아간다. 원래는 지영감을 중매할 목적이었으나 막상 선술집의 여주인을 만나자 두 사람은 모두 당황한다. 그들 사이에 얽힌 과거의 사연은 이렇다. 최과장은 취업난으로 모두 고통을 받던 60년대에 인력을 배치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인사 담당이었다. 아기를 갖지 못해 이혼을 당하고 취업을 알선 받으러 온 분녀를 보고 반해버린 그는 취업 알선을 핑계로 그녀의 집에 찾아와 그녀를 능욕하려다 실패한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그 결과를 두려워 한 나머지 최과장은 오히려 분녀가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는 식으로 상관에게 보

고하고 분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 한편, 이에 낙심한 분녀가 고향인 통바위골로 내려간 후 만나게 된 사람이 김부장이었다. 그는 사청공작대의 대장으로서 상처하고 슬하에 딸을 둔 사람이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녀를 사랑한 그는 분녀와 결혼하려 하지만 자신의 앞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여 분녀와의 관계를 숨긴다. 김부장은 출세를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후에야 분녀가 자신의 아들을 낳은 것을 알게 된다.

며칠 후, 다시 아침 운동을 나간 자리에서 김부장은 지영감으로부터 선술집 여인이 보낸 ‘오늘 저녁에 꼭 와달라’는 편지를 건네 받는다. 너무 늦게 분녀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은 그는 두 사람 앞에서 분녀와 둘이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하다가 지나치게 흥분하여 그만 뇌출혈로 쓰러진다. 이처럼 작가는 분녀에게 고통을 겪게 한 최 과장과 김 부장, 그리고 주변적인 인물인 지영감과 김 부장의 부인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 과장이 과거를 곧 뉘우치지만 그녀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다시 부각되는 반면, 김 부장은 결말에 가서 분녀와 둘이를 각각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의 주변부에 있는 인물인 지영감이나 김부장의 아내 역시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속물 취향의 모습이다. 지영감은 사회 계층상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기회만 있으면 김부장과 최과장 같은 힘있는 자들에게 영합하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김부장의 아내는 분녀와 대조되는 인물로서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악녀로 그려진다.

그러나 최 과장이나 김 부장들과는 달리 ‘둘이’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이다. 구세대가 자신의 체면이나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고수한 것에 대해 작가는 분녀의 목소리를 빌어 이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분녀가 김부장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도 이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한편, 저는 그 애가 성숙되어가니 불안해나기 시작해요. 그 애도 당신처럼 벼슬이 높아갈수록 백성을 업신여기거나 또 녀인을 고무공처럼 차버리는 걸 대수로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전 그 애가 당신을 닮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최 과장과 김 부장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남성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피지배계층인 백성을 억압하는 권력을 지닌 지배계층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건 속에서의 배경이나 인물의 심리 묘사가 ‘앵두 같은 입술’ 수준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이 너무 쉽게 드러난다. 김 부장의 만남과 이별 사이에 ‘불고기’가 소도구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일부에 그치고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장치가 단조롭다.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은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토록 한 것이다. 범상한 여인이 아닌 듯한 선술집 여인의 정체에서부터 두 사나이의 선술집 여인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소설을 끝까지 읽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나름대로 상투적이지 않은 결말처리를 위한 노력이 보여진다. 김 부장과 분녀와 둘이 해후하여 그 동안의 못다한 정을 나누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될 듯 하다가 가장 간절한 순간에 김 부장이 죽어버림으로써 작가는 그들에게 해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소설은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식의 동화적인 결말 처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4. 맺음말

신중국수립(1949년)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나기까지의 약 27년간의 중국문단은 문학은 정치에 종속되고 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측의 문예정책과, 문학이 정치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교조적인 정치이념만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문학작가들의 주장 사이의 갈등의 연속이었다.⁵⁾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학은 의미있는 ‘변화’, 참다운 ‘개혁’의 시대를 맞이

5) 김영철, 「80년대 중국문단의 신경향」, 『전망』(1989. 11.),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p.123.

하게 되었다. 80년대 중국문학은 두 가지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데, 하나는 인간을 계급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체적 존재로 인식하여 그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중심의 '主題先行論'으로부터 문학 자체의 '內在律'을 중시하여 작가의 주관적 미의식에 의한 다양한 예술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⁶⁾

조선족 페미니즘 소설은 이러한 인간적·미학적 변화에 그 생성의 뿌리와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족은 오랫동안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 또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이를 낳아 남편의 家系를 잇고 현모양처로 헌신하여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그런 까닭에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른바 '남존여비' 또는 '大丈夫主義'에 속박된 채 무수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조선족 여성의 정치적 법률적 지위가 향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위세를 떨치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갖가지 보수적인 관념의 억압 속에서 여성의 삶은 여전히 '종속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반페미니즘적 상황이 80년대의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서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작각과 함께 남성중심의 억압적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는 조선족 문학이 가장 크게 발전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기에 소설문학은 특히 다른 장르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과 여성의 주체 의식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남성작가들과는 구별되는 개성적 제재와 주제를 통해 독자의 새로운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킨 여성작가들의 소설이 집중적으로 창작·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80년대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강렬한 '시대감응의식'과 '사회참여의식'을 소유한 여성작가들이 숭고한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감, 시대적 사명감을 지니고 소설창작을 통해 사회와 인생에 대한 엄숙한 사고와 삶의 가치, 사랑과 운명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보여주었음⁷⁾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력을 인정하여 문예지 『천지』는 '여성작가

6) 김영철, 앞의 책, p.125.

7) 리승매, 애정을 주제로 한 중국 조선족 여성소설, 『중국 조선족 문화 연구』, 앞의 책, p.217.

특집란'을 여러 차례 마련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⁸⁾ 필자가 조사한 바로 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소설작가는 20명에 가깝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 선택이나 인물의 형상화 방법에서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남성작가들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급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여성의 모습과,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성된 여성의식을 형상화하는 소설적 방법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특히 개성적으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개성화란 남성의 인식과는 그 토대가 다른 '여성적 세계관'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페미니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문학으로서의 가치와 意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설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내용적 결함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유의 상투성이다. 비유가 상투적이라는 것은 작가의 思惟가 매우 얕다는 뜻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敘述視點의 혼란 역시 작중 현실의 객관적 인식에 방해가 된다. 작품의 구성 역시 매우 도식적이다. 대개의 경우 현재, 과거, 현재의 順으로 이야기가 느슨하게 진행되어 소설적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앞뒤 사건의 인과관계가 견고하지 못하여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작품이 지나치게 교훈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작품의 교훈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안이한 해결방법,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말처리가 바로 문제다. 이것은 현실 상황에 대한 작가의 끈질긴 탐구정신과 치열한 대결의식의 결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이중적인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방룡주의 「선술집 녀인」에서 작가는 분명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작가의 태도가 바로 그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버림받고 홀로 그의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기른 후 자신을 버린 남자 앞에서 떳떳해 하는 모

8) 예컨대 『천지』 1985년 3월호에는 “국제 부녀절을 맞으며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녀성작가특집이란 이 꽃다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집을 보시고 우리 겨레 여성들 속에서 이미 작가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 뿌듯이 느껴쥬지요.”(p.1.)라는 편집자의 글이 실려 있다.

습은 통속소설에서 흔히 보아오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후 주위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던 곳곳한 여성이 어느 순간 ‘아들을 잘 길러서 그나마 당신 볼 면목이 섰다’는 태도로 돌변하는 것은 결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다시 함몰되어 버리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二重性은 비판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주제어 : 조선족, 페미니즘, 여성성, 각성, 인습, 여성노인, 형상화, 세계관, 개혁, 보수

참고문헌

- 권춘철 편,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 방략 연구』, 료녕민족출판사, 1997.
- 김동화·김승필 편,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 집문당, 1995.
- 손장권·김응렬·박길성 공저, 『중국 조선족의 사회발전과 한·중 관계의 위상』, 아산 사회복지사회재단, 1995.
- 전성호, 『중국 조선족 문학예술사 연구』, 이회, 1997.
- 정신철, 『중국 조선족--그들의 미래는』, 신인간사, 2000.
- 조성일·권철·김동훈, 『중국 조선족 문학사』, 연변민족출판사, 1990.
- 연변대학 제1차족 중국 조선족 문화 학술토론회 논문집, 『중국 조선족 문화 연구』, 연변대학 출판사, 1993.
- 『한국문학논총』제20집, 한국문학회, 1997.
- 『전망』, 1989년 11월호,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Feminist Novels of Korean Women Writers in China

Min, Hyeon-Ki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each work through analyzing 11 Feminist Novels written by Korean women writers working presently in China. Women writers in China began to take an active part in entire literary world since 1980s. China has gone through steep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t this period of time, which eventually brought many alterations to Korean literature in China. What stands out most clearly among those changes is a fact that so many competent writers has appeared. This fact means female writers' self-awareness and self-consciousness to make their social values come true and to change male-dominant literacy climate.

The literary meaning accomplished by women writers' novels is that we can find the transition from men-centered world view to women-centered one. Writing novels not with men's sense and language but with those of typical women's is meaningful. It is also valuable in a sense that almost all of the women's writers try to manifest 'femininity' and 'maternity' by taking a female as a leading figure. Woman writers in China have been sincerely searching out what is the status of husband and wife, what is a happy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how to break the social barriers constraining women's lives. Specially they have sought for the settlement of an ideal home by harmonizing their tasks at work with the love of their husbands.

Nevertheless, it cannot be ignored the faults presented in novels commonly. It is considered as formative faults such as a trite figurative, confusion of point of view, unsensible involvement of writer which blocks objective awareness of reality in novels, loose story plot and statement construction with unstable cause. The more serious and bigger problem is that most works flow in an exceedingly instructive way, so they just look for an easier way to solve the conflicts or wind up a story with a happy ending too often. It means the lack of steady exploratory spirit and sense of competitiveness.